기획시리즈 오늘 문화, 어떻게 볼 것인가?

급변하는 사회의 문화지형도 찾기

현단계 문화현실 비판 〈1〉

맑시즘에 관한 위기론과 전체적 붕괴에 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현실문화에 관한 관심과 비판적 해석의 당위성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이는 한국사회에 있어서 현실변혁이론으로서 80년대를 주도한 이론들에 대한 점검에의 시도이며, 변혁을 이루지 못한 채 민주 대 반민주주의의 대결도 완수되었다고 볼 수 없는 90년대 문민정부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관한 문제의식일수 있다. 또한 최종심급의 결정—혁명은 있을 수 없다는 포스트모더니즘 계열의 문화논리와 그 문화현상의 징후를 보이고 있는 현대사회의 지형도를 읽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며 중층적 결정의 요소인 문화가 전에 없이 중요한 계급투쟁의 장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시각에서 비롯된 변혁이론에의 모색이라고 볼 수 있다.

최종수준에서의 결정은 경제적 종위와 함께 정치, 종교, 문화, 교육, 이데올로기등의 상부구조의 중층적인 작용에서 이루어진다고 맑시즘을 재해석한 알뛰세르는 1971년 러시아 혁명과 1960년대 중국문화혁명을 중층적 결정의 사례로 본다. 이들 혁명적 사회변화에서 이데올로기 층위가 경제의 왜곡된 표상만으로 작용한 것이 아니라 민족적 전통,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기구들이 러시아와 중국사회에 있어서 중층적으로 결정된 국면이 터져나온 것이라는 것이다.

알뛰세르의 이데올로기에 관한 정의는 고전적 맑시즘에서의 이데올로기—허위의식과 달리 이데올로기가 삶의 영위정험이고 개인들이 그들의 실재존재조건과 맺고 있는 상상적 관계의 표현인 독자적 생산층위라고 했으며 '생산의 조건을 재생산'하는 기제라고 언명했다. 다시 말해 자본주의 가 그 생산과 지배의 체계를 끊임없이 정당화하고 재생산하는 체제재생산의 능력이 문화의 층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제기에 이른 것이다.

근래들어 문화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고 있으며 심지어 사회과학 분야에서도 문화론적 관심이 득세를 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하는 바다. 다니엘 벨등의 '신보수주의'문화론이 있는가 하면 장 보드리아르의 탈근대 문화론이 있고 프레드릭 제임스의 '후기 자본주의 문화론'도 있다. 여기에 앙리 르페브르의 '일상문화론'이나 블프강 프리츠 하우스의 '상품미학론'미셸 페쇠의 '담론구성체' 등의 문화론을 망라할 수 있다. 이러한 문화론들이 대거 등장했다는 것은 현단계 주요 정세변화가 문화영역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입장이 강화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최근 들어 문화 관련의 담론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와 관계된 역사적 이유를 필연적으로 내포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현실문화에 관한 문제제기는 우리 사회가 일련의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는 80년대 목적의식과 현실을 점검하는 작업으로서 유용한 논의가 될 수 있을 것이며 혹은 일상의 현실문화속에 문제

◇대중문화는 일상문화인가 저급문화인가

포스트 모더니즘 범람, 현실 파악 모호
문화층위와 일상성, 변혁공간 논의부각

의식의 실종을 보이고 있는 주체체제의 세대들에 관한 진지한 문제제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몸담고 호흡하고 소비하고 있으며 우리사회에 혁명의지를 부화시키는 기제로서 파악될 수도 있는 현실 문화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의미를 재상산하고 있는가에 관한 고찰은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포스트 모더니즘과 상품미학

80년대가 민중문화의 시대였다면 90년대의 가장 주요한 개념은 대중문화가 될 것이다. 그러나 대중문화라는 어휘를 화두로 삼는 일에는 몇가지 저어되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키치문화, 대중문화라는 용어자체가 현 단계 우리나라의 문화현실이라는 큰 범주를 지칭하는 대의어가 될 수는 없다는 생각때문에 그러하고 고급문화/저급문화의 수직이분법 용어인 대중문화는 탈문화적인 문화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 현대에서 문화적 대중주의와 결부된 포스트모더니즘의 징후만을 강조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적으로 문화현실을 파악하고 읽어내는 작업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인식체계가 체계적으로 선행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 우리 현실문화 연구의 척도를 모호하게 하기도 하거니와 미학적 대중주의와 주체의 해체라는 특징을 가진 포스트모더니즘이 다름아닌 후기 자본주의 시대의 다국적 자본의 문화논리라는 사실 그리고 전지구적으로 범람하는 이론이 가지고 있는 비전망성 때문에 우리 나름의 지향성을 찾아내기란 어려울 것이라는 난점이 있다.

여하튼 포스트모더니즘의 해석과 수용여부는 그 쟁점에 관한 무성한 논거를 떠나서 이미 우리 사회 문화에 중후군으로 떠돌고 있다는 측면에서 현 문화현실의 좌표를 바로 보기 위한 혹은 바로 잡기 위한 인식적 지형도가 쉴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동안 사소하고 저속한 것으로 여겨져 왔던 대중문화에의 관심은 미학적 대중주의를 통한 고급 저급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있고 이러한 현상황에서 상품의 대량생산 체제 안에서 문화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에 고찰이 요구된다.

사용가치와 교환가치에 더불어 상징적 가치가 부여되어 유포되는 상품미학은 물신성의 고조와 더불어 욕망구조의 가속화를 부추기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욕망의 매커니즘은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환상과 같이서 미래가 증폭되는 바람에 미래를 자신의 현재로 착각하게 하는 매커니즘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경제가 문화를 필요로 하게 된다.

이윤증식을 위해서 이제는 광고나 포장에서도 사용가치, 단순한 미적가치보다 디자인과 같이 욕망생산 매커니즘에 대한 투자가 중요해지기 시작했고 그것이 훨씬 더 큰 경제적 이윤을 불러 일으키는 작용을 데 대학인도 더이상 문화의 선도자이기 보다 소비자의 범주로 전락했다는 사실의 자각이 필요하다. 집회와 쫓다지의 공연이 끝나고 난후 학교대문을 나서면 록카페나 노래방을 들어갈 수도 있으며 잠들지 않는 상점 24시간 편의점에서는 다품종 상품들 속에서 스스로의 선택이 자의적이고 주체적이라는 착각을 하며 물건을 고를 수 있다. 고를 수 있지만 안 고르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혹은 무감하게 그 문화를 수용한다.

우리 모두는 자본주의 공간에서 호흡하고 광고나 문화라는 자본전술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어 있으면서 그 일상성 때문에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전황적으로 작용하는 자본주의 체제속에서 문화 예술 건축 전반에서 특히 문화의 측면에서는 더뎔리 변화하고 있는 최근의 추세를 능동적으로 해석하는 것에서 우리의 문화현실 파악의 노력은 시작되어야 할 것이며 극복의 모색도 거기에서 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일상의 삶에서의 변혁

우리는 일상생활이란 하찮은 것, 우연적인것, 반복적인 것, 따라서 가치없을뿐 아니라 지식이나 정신의 영역과는 거리가 먼 것, 또는 상반되는 것으로 간주하기 쉽다. 그러나 일상생활이란 그 규모의 사소함과 반복성 속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을 뿐 아니라 한 사회의 가치나 문화가 직접 반영되기도 하는 실제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나 경제, 법 등의 제도가 한 사회의 고형체, 유형적 질서를 이룬다면 일상생활의 영역은 유동적이며 무형적인 질서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질서는 서서히 형성되기 때문에 확연히 눈에 띄지 않고 따라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고 간과하기 쉬운 성향을 가지고 있다.

르페브르는 삶의 공간을 문제삼음으로써 문화에 접근했다. 그는 일상의 삶을 벗어나서는 오늘날의 문화를 생각할 수 없다고 말한다. 실제로 현대 문화현상은 욕구와 소비, 환경과 쓰레기, 광고와 매체, 욕망과 무의식, 육체와 여성과 상품, 여가와 관광, 모방과 유행 등을 포함하는 일상적 삶의 지평안에서 전개된다. 그리고 이 삶은 지배적으로 도시공간의 것이며 르페브르는 지금까지 사소하고 진부한 것으로 여겨져온 일상세계에 주목할 필요성을 환기 시켰다.

일상의 삶에 대한 주목은 르페브르가 언급했듯이 '일상을 수락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 곧 일상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바꿀 수 있고 변화가능하며 그것의 변화는 사회기획의 주요한 일부이다. 혁명은 단순히 정치제도나 정치종사자들을 바꿈으로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미 자본주의에 의해 문자 그대로 식민화되어 있는 '일상의 삶'을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

이 기획시리즈의 취지는 우리의 문화가 현실반영과 현실변혁에 있어서 중차대한 몫을 점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며 자본주의적 사회 문화의 현실을 직시하고 비판해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이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문화현실을 읽어나가면서 그 분석만으로 대안이나 전망을 제시할 수 있는가에 관한 회의적인 논의가 많다. 하지만 우선적으로 현실과학과 인식의 잣대를 공고히 해야한다는 다소 거칠은 행보를 내 딛는다.

〈기획부〉

강단시론

민 영 기
〈자연대교수·우주과학〉

천문학적 숫자와 보통생활

최근 고위공직자에 대한 재산 공개가 이루어지면서 이들이 보유한 재산이 엄청나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 그들이 발표한 재산의 액수가 축소되고 또 일부는 누락되었다고 하여 물의가 이는 가운데에서도 발표된 재산은 지그마저 억대도 아닌 수십억에서 수백억대에 이르고 있다.

재산공개가 이루어진 이후 론 억이라는 숫자가 보통 사람들의 입에도 자주 오르내리게 되었고, 이 숫자에 대한 사람들의 개념이 무디어진 것 같은 느낌이다. 실제로 억이란 숫자는 엄청나게 커서 천문학에서나 다루는 천문학적 숫자이다. 일상생활에서는 가끔 돈 계산이나 세계 인구의 숫자를 나타낼때만 쓰였을 뿐 별로 자주 쓰여지지 않았다.

억이란 1에 0을 8개 붙인 숫자로서 이것이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것을 나타내는 숫자이다. 돈으로 1억원은 한달에 6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14년 동안 받는 월급이고, 천원짜리 지폐의 가로 길이가 15㎝니까 천원짜리로 늘어 놓으면 1만5천㎞로서 서울에서 뉴욕에 이르는 거리이다. 우리가 1에서 1억까지 셈을 한다면 숫자 하나를 세는데 평균 3초를 잡아도 1억을 세는데는 10년이 걸린다.

그러나 이 억이라는 숫자가 천문학에서는 그리 큰 숫자가 되지 못한다. 우주를 다룸에 있어 우리는 10억, 백억, 천억, 조 또는 그 이상의 숫자를 더 자주 쓰게 된다. 우선 천문학에서 자주 쓰이는 거리에 관해서 알아보자.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평균 거리가 1억5천만㎞이다. 이 거리는 1초에 30만㎞, 즉 지구를 1초에 일곱바퀴 반을 돈다는 빛의 속도로도 8분이 걸려야 갈 수 있는 엄청난 거리이다. 태양계 행성들 중에서 가장 먼 명왕성까지의 거리는 이것의 약 40배에 해당하는 60억㎞이다. 그러나 이거리도 다른 항성(스스로 빛을 내는 별)까지의 거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항성인 프록시마 센타우리까지는 빛의 속도로도 4년4개월이 걸리는 거리로서 ㎞로는 13조㎞에 해당된다.

그러면 우주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거리가 먼 퀘이사는 0Q172로서 이 퀘이사는 빛의 속도의 90%인 초속 27만㎞로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다. 이러한 우주 팽창으로부터 구한 이 천체의 거리는 약 1백50억 광년이다. 그러니까 이 천체에서 받는 빛은 1백50억년전에 그곳을 떠난 것으로 우리는 그 천체의 1는 1백억에서 2백억년사이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우주에는 얼마나 많은 물질이 있을까? 사람의 몸무게는 평균 60㎏쯤 나간다. 그러나 지구의 질량(이것은 지상에서 무게에 해당하는 양이다)은 6×10^{21}㎏이나 된다. 태양은 지구 질량의 33만배로서 10^{26}㎏쯤 나간다. 은하수에는 태양과 비슷한 별이 2천억개는 있으니까 은하수의 질량은 태양 질량의 2천억배인 10^{44}㎏이나 된다. 우주에는 은하수와 같은 은하들이 천억개는 있으니까 우주에 있는 물질의 총 질량은 태양질량의 2천억×천억배라는 엄청나게 큰 숫자가 된다. 그러나 천문학자들은 이것도 우주의 물질 모두가 아니라 우주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이 있는데 그 양이 보이는 물질의 양보다 10배나 많으리라는 짐작이니 전체 양은 실로 상상을 초월한다. 천문학적 숫자는 이와같이 끝이 없이 올라간다.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백만불 이상 가진 부호를 백만장자라 불러왔다. 지금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들이 부호라 불릴것까지는 없지만 아직도 부자임엔 틀림없다. 백만불이면 우리 돈으로 약 8억원이다. 재산 공개한 사람들 대부분이 이만한 돈은 가졌으니 전 인구에 대비한 백만장자의 수에서 우리가 미국을 능가할 것 같다. 그것도 웃지못할 일은 8세짜리가 백만장자라니. 신문 방송에서 이러한 천문학적 숫자를 거의 매일 대하는 서민들의 마음은 어떠할까? 이렇게 높은 숫자는 천문학에서와 마찬가지로 끝지아픈 것임에 틀림없다. 이제 이러한 숫자는 천문학자들이나 쓰게 두고 우리 일상생활 주변에서는 좀 사라져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21세기를 여는 현대의 첨단기술 그 주역을 찾아서!현대자동차 편!

현대자동차 전자기술부 전기자동차 개발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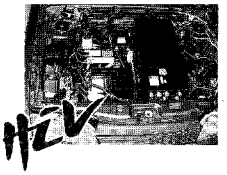
늦어도 97년까지는 전기자동차 양산체제를 갖출수 있도록 하라 !
이것이 우리에게 떨어진 특명입니다.
98년부터는 무공해자동차를 생산하지 못하면 미국시장에 자동차를 수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3년여의 연구 끝에 우리는 시속 130㎞/주행거리 150㎞의 무공해 전기자동차 4호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는 GM, BMW, 닛산과 함께 세계선두그룹을 이루는 수준이며, 더욱이 그들보다 짧은 기간 동안 얻은 성과이기에 더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특히 전기자동차의 생명인 배터리 분야에서 우리는 이미 나트륨-메탈수소 배터리를 개발, 완성단계에 있는데 비해 GM, 포드, 클라이슬러는 최근에야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이 배터리는 1회충전 주행거리 400㎞ 최고시속 160㎞ 총주행거리 20만㎞에 소음과 오염이 전혀 없는 세계 최고의 성능을 자랑합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무공해 전기자동차가 98년 캘리포니아를 달리는 그날을 기다리며…



"무공해를 향한 쾌속질주—
미국의 '빅 3' 社를 앞지르고 있습니다"

— 무공해 전기자동차 4호 개발 —

現代